

공동체 기도

1. 뉴저지초대교회가 즐거운 찬송을 부르는 신실한 예배자들로 세워지도록
2. 일터와 삶터에서 삶의 예배자로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들로 살아가도록
3. 공동체 환우들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우들이 은혜 가운데 회복되도록
4. 각 가정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양육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5.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 당회와 모든 영적리더들이 성령충만하도록
6. 제자반, 일대일 양육, 일터사역 등 장년 교육 프로그램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도록

교회 일정

- 5월 19일 (주일) : 정기제직회, 6월 순장교육, 권사회연례모임
 5월 26일 (주일) : 소망공동체 큰잔치
 6월 16일 (주일) : 한생명 초청주일
 6월 23일(주일) : 5,6월 새가족 환영회
 6월 30일 (주일): 7월 순장교육

즐거운 찬송을 부르는 예배자

주님과의 첫사랑을 기억하라

예레미야 2:1-8

알리는 말씀

1. 2019년 교회 표어는 '즐거운 찬송을 부르는 예배자' 입니다.
2. 순예배의 순서는 다음과 같이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2~3곡 찬양/대표기도/성경봉독/순교재나눔/기도제목나눔
 - 순교재 나눔시 순원들이 돌아가면서 나누는 것을 추천합니다.
 - 기도제목 나누는 시간을 꼭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3. 공동체 암송(시편 100:1~5)& 찬양 스케줄:
 5/24 - 15공동체, 5/31 - 16공동체, 6/7 - 17공동체
 (하반기 9/6에 18공동체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4. 가족 순예배 교육은 5/26일 1:30pm 유년부실에 있습니다.
 홈페이지 순교재다운로드 항목에 자녀를 위한 순교재 파일들이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5. 순모임 후에 온라인을 통해 순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두 번째 모임의 순교재는 매달 둘째 주일 로비에 배치됩니다.
7. 디아스포라 사역: 순원들 중에 교회를 떠나 타주나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은 공동체 담당 목회자에게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을 기억하라 (예레미야 2:1-8)

하나님 찬양 드리기 (각 순의 상황에 따라 다양하고 적절하게 찬양하세요)

-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새찬 304 장), 나 무엇보다도 주님을
- **Focus**,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할 때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마음 열기 | 한 주간의 삶과 QT, 감사 제목 등을 간단히 나누며 마음을 여세요.

말씀 열기 | 예레미야 2:1-8 을 함께 읽습니다.

배경 이해하기

예레미야는 힐기야의 아들로서 제사장 가문의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유약한 그를 택하여 부르셔서, 여러 왕국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시키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는 사명을 맡기십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다 고난 당할 그를 보호하시겠다는 약속도 주십니다. 예레미야가 본 환상 중 끓는 가마 환상은 하나님의 심판이 유다에 부여될 것을 암시합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을 저버리고 이방 신과 스스로 만든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과거에 그들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일깨우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랑의 관계입니다.

> 말씀 나누기

1-1. **관찰과 묵상** | 하나님이 말씀하신 “네 청년 때”, “네 신혼 때”는 언제를 가리킬까요? 하나님은 그 때의 이스라엘을 어떻게 표현하셨나요? (1-3 절)

1-2. **적용과 나눔** | 각자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나누어 보세요. 처음 사랑을 변함없이 유지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2-1. **관찰과 묵상** | 하나님이 지적하신 유다의 죄악은 무엇인가요? (5 절) 제사장들, 율법을 다루는 자들, 관리들, 선지자들의 영적 상태는 어떠했나요? (8 절)

2-2. **적용과 나눔** | 내 삶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실 만한 죄악된 모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 말씀 다지기

출애굽 이후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은 신혼부부처럼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따르면서 모든 복을 스스로 가로막았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한데 인간의 사랑이 변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부부 관계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처음 사랑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며,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성도는 그 사랑에 신실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 헛되고 가증한 세상 것들을 이제 더는 좇지 않기 원합니다. 제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함으로, 능력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마음에 새기기 | “... 내가 너를 위하여 네 청년 때의 인애와 네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렘 2:2)